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21. Vol. 40, No. 1, 1-11

Original Article
© 2021 Korean Clinical Psychology Association
https://doi.org/10.15842/kjcp.2021.40.1.001
eISSN 2733-4538

Childhood Maltreatment Experiences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Behavior: Mediator Effects of Rejection Sensitivity and Callous-Unemotional Trait

Seung Gyu Lee Hyunjung Choi†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Korea

This study examined how childhood maltreatment experiences affect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behavior through rejection sensitivity and callous-unemotional traits. We measured childhood maltreatment experience, rejection sensitivity, callous-unemotional traits, pure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behaviors among a community sample of adults. Among the 328 participants, 134 people with intimate partner violence behaviors were selected. Mediation effects were analyzed using a regression analysis and a bootstrapping technique. Childhood maltreatment experiences were not related to pure reactive aggression; however, using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t can be inferred that rejection sensitivity, but not callous-unemotional traits, was related to pure reactive aggression. Childhood maltreatment experiences were related to pure proactive aggression, and callous-unemotional traits showed complete mediation. Theoretical and clinical implications of childhood maltreatment, aggression type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Keywords: childhood maltreatment experience, intimate partner violence, rejection sensitivity, callous-unemotional traits,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데이트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IPV)이란 연인관계에 있는 상대에게 신체적, 성적, 정서적(심리적) 학대 및 행동 통제를 가하는 폭력을 의미한다(Heise & Garcia-Moreno, 2002). 2018년 국내 통계자료에 따르면 연인관계에서 일어나는 총 범죄건수는 13,965건이었고, 이 중 상해, 폭행을 포함한 폭력 범죄 건수는 9,372건으로 연인관계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대부분이 데이트 폭력이라고 볼 수 있다(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9). 데이트 폭력 피해자는 우울 증상, 물질 남용, 만성 질병, 만성 정신병리, 그리고 부상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러한 데이트 폭력의 부정적 영향에 대비하기 위해 예방적인 측면에서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Coker et al., 2002;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2).

†Correspondence to Hyunjung Choi,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1 Chungdae-ro, Seowon-gu, Cheongju, Korea; E-mail: hchoi@g.cbnu.ac.kr

Received Sep 10, 2020; Revised Dec 29, 2020; Accepted Dec 30, 2020

This work is based on the master's thesis of the first author.

공격성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Crick과 Dodge (1996)은 아동 공격성을 서로 다른 사회적 정보처리 과정을 가진 반응성 공격성과 주도적 공격성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반응적 공격성(reactive aggression)을 보이는 아동은 애매한 사회적 정보에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복수나 자기방어를 위한 공격 성향을 보이는 반면, 주도적 공격성(proactive aggression)을 보이는 아동은 공격 행동에 대해 우호적으로 지각하고, 공격성을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며 이를 통해 공격행동이 강화되는 특징을 보인다(Crick & Dodge, 1996).

유사하게 데이트 폭력 연구는 데이트 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데이트 폭력이 주도적 공격성 혹은 반응적 공격성의 형태로 나타나는지 분류하여 유형별 특징을 연구하였다(Chase, O'Leary, & Heyma, 2001; Stanford, Houston, & Baldridge, 2008; Tweed & Dutton, 1998). 먼저 반응적 공격성과 유사한 충동적(impulsive) 공격성을 보이는 데이트 폭력 가해자는 수동 공격성과 함께 경계선 및 회피적 성격 특성을 보이며 만성적인 분노와 공포 애착 유형을 보이는

www.kci.go.kr

것으로 나타났다(Tweed & Dutton, 1998). 이들은 주도적 공격성과 유사한 개념인 계획적(premeditated) 가해자들보다 다양한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Stanford et al., 2008). Chase 등(2001)의 연구에서 데이트 폭력 가해자 중 반응적 가해자들은 주도적 가해자들보다 의존성 성격 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응적 가해자는 주도적 가해자보다 분노 수준이 높았지만 지배성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반응적 가해자들은 갈등 상황에 대한 분노 반응으로 공격행동을 보일 것이라고 하였다.

주도적 공격성과 유사한 도구적 공격성(instrumental)을 보이는 데이트 폭력 가해자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폭력을 도구로 쓰며 반사회적-자기애적 성격 특성을 보이고 더 심각한 신체적 폭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weed & Dutton, 1998). 마찬가지로 주도적 공격성과 유사한 계획적 가해자는 반응적, 즉, 충동적 가해자보다 파트너 폭력 행위 치료에 대한 저항과 정서적 각성의 부족 같은 정신병질(psychopathic) 특성이 높았다(Stanford et al., 2008). Chase 등(2001)에서도 데이트 폭력 가해자 중 주도적 가해자는 반응적 가해자보다 반사회성 성격 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배를 위한 공격행동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처럼 주도 및 반응적 가해자들의 특징들이 일관되게 구분되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 가해자의 공격성 유형에 맞춰 다른 방식의 개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Chase et al., 2001; Stanford et al., 2008). 본 연구는 데이트 폭력 행위에서 주도 및 반응적 공격성을 더욱 깊이 이해하기 위해, 특히 아동기 학대 경험에 주목하여 아동기 학대가 데이트 폭력 공격성 유형 발현으로 이어지는 발달 경로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동기 학대 경험(childhood maltreatment experience)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이다(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2018).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이다(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2014). 아동기 학대를 경험한 성인은 우울과 불안 같은 내재화 문제(Gibb, Butler, & Beck, 2003; K. S. Park, 2018; Yoon, 2017)뿐만 아니라 공격성이나 약물남용 같은 외현화 문제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O’Sullivan, Watts, & Shenk, 2018; K. S. Park, 2018; Yoon, 2017). 특히 폭력과 같은 외현화 문제는 자기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아동기 학대 경험과 공격성 유형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아동 학대 경험은 초등학교 고학년뿐만 아니라 후기 청소년 및 초기 성인의 반응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K. S. Park, 2018; H. E. Park& Park, 2017). 그리고 Richey, Brown, Fite와 Bortolato (2016)에 의하면 대학생의 아동기 학대 경험은 주도적 공격성과 관련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반응적 공격성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Connor, Steingard, Cunningham, Melloni와 Anderson (2004)의 연구에서 치료센터에 의뢰된 5–18세 아동청소년의 경우, 아동기 학대 경험은 반응적 공격성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초 상관분석에서는 반응 및 주도적 공격성 모두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Hoeve 등(2015)의 연구에서 사법시설에 있는 남자 청소년의 아동기 학대 경험이 정신건강을 매개로 반응 및 주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Scott (2017)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 초기 성인 및 아동기 역경 경험이 있는 일반 대학생 집단에서도 아동기 학대 경험이 반응적 및 주도적 공격성 모두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임상 집단 표본인 경우 반응 및 주도적 공격성 모두와 관련성이 나타났고, 특히 사법 시설 집단 표본인 경우 아동 학대와 주도적 공격성과의 관계가 두드러진 반면, 비임상 집단에서는 아동학대와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가 더 두드러져 보인다. 그러나 다양한 표본 간 비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채 아동학대와 공격성 유형 관계에 대한 결과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선행연구에 의하면 아동기 학대를 경험하더라도 자아 탄력성이나 또래 애착, 사회적 지지와 같은 보호 요인을 통해 공격성이 완화될 수 있다(S. G. Kang, 2018; C. H. Lee& Shin, 2015). H. Y. Kim과 Park (2017)의 메타분석에선 아동기 외상에 대한 심리 치료가 공격성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기 학대 경험은 공격성의 위험요인일 수 있으나, 아동기 학대를 경험한 모든 사람이 공격성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는 아동기 학대 경험이 어떤 과정으로 데이트 폭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매개 경로로 거부민감성(rejection sensitivity)과 냉담-무정서 특질(callous-unemotional traits)에 주목하였다.

거부민감성과 냉담-무정서 특질은 공격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Jacobs & Harper, 2013; H. K. Lee, Kim, & Lee, 2014; J. H. Lee, Lee, & An, 2017; White, Gordon, & Guerra, 2015). 거부민감성은 중요한 타인이 자신을 거부할 것이라는 기대하고 걱정하는 성향으로(Feldman & Downey, 1994),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거부를 더 잘 지각하며, 거부에 대해 불안해하고 거부당했을 때 과잉 반응하는 인지 경향성을 보인다(Downey & Feldman, 1996). M. J. Park과 Yang(2017)은 이러한 기존의 개념을 좀 더 확장하여 거부민감성을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거부를 기대하여 불안과 분노를 느끼며, 거절에 대한 단서를 빠르게 감지하고 모호한 단서는 거부로 지각하여 거부당하는 것에

www.kci.go.kr

https://doi.org/10.15842/kjcp.2021.40.1.001

대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성으로 정의하였다.

H. K. Lee 등(2014)에 의하면 거부민감성은 이후 성인들의 대인관계에서 공격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거부민감성과 데이트 폭력 행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도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데이트폭력 행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Downey & Feldman, 1996; Yang & Suh, 2015). Shin과 Choi (2017)의 연구에 따르면 거부민감성이 데이트 폭력 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거부민감성은 공격성을 거쳐 데이트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응적 공격성을 보이는 데이트 폭력 가해자는 연인의 거부 혹은 배신에 대해 공포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Tweed & Dutton, 1998). 이러한 결과들을 보면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연인에게 거부를 지각하는 상황에서 정서조절에 실패하여 반응적 폭력을 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기 학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거부민감성이 더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Feldman & Downey, 1994; H. E. Kang & Cho, 2017),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는 아동기 학대가 데이트 폭력의 반응적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거부민감성에 주목했다.

한편, 냉담-무정서 특질은 정신병질을 설명하는 정서적 측면이며 죄책감과 공감의 결여가 특징인 냉담성(callousness),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과제 수행에 신경 쓰지 않는 게 특징인 부주의/무신경(uncaring), 정서표현이 없는 게 특징인 정서표현결여(unemotional)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Essau, Sasagawa, & Frick, 2006; Frick, Bodin, & Barry, 2000; Gill & Stickle, 2016). 냉담-무정서 특질은 아동청소년의 품행장애와 관련이 있었고(Salekin, Leistico, Neumann, DiCicco, & Duros, 2004), 성인 폭력 행동의 빈도 및 양상과 관련 있었다(Kruh, Frick, & Clements, 2005).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된 White 등(2015)의 연구에서 냉담-무정서 특질은 반응적 공격성보다 주도적 공격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대학생들의 정서적 냉담성, 죄책감 결여가 특히 주도적 공격성에 대해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J. H. Lee et al., 2017).

또한 Bains (2017)에서 여자 대학생의 냉담한 성격 특성은 모든 아동 학대 유형(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심리적 학대, 방임, 가정폭력 노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 대학생 집단에서 냉담-무정서 특질은 아동기 학대 경험과 폭음, 신체적 폭력, 위험한 성관계와 같은 위험 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Carlson, Oshri, & Kwon, 2015), 아동 학대와 냉담-무정서 특질의 관계를 예측할 수 있다. 보호관찰을 받거나 아동기 역경을 경험한 고위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냉담-무정서 특질은 아동기 학대 경험과 주도적 공격성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를 매개하지 않았다(Scott, 2017). 이를 볼 때 냉담-무정서 특질은 데이트 폭력에서 주도적 공격성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거부민감성과 마찬가지로, 데이트 폭력 행위자를 대상으로 냉담-무정서 특질이 아동기 학대 경험과 반응적 혹은 주도적 공격성의 관계를 어떻게 매개하는지 함께 살펴본 연구는 부재하다.

종합하면, 데이트 폭력 행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아동기 학대 경험이 이후 반응적 혹은 주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쳐 데이트 폭력 행위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거부민감성은 아동기 학대 경험과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를 매개하고, 냉담-무정서 특질은 아동기 학대 경험과 주도적 공격성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데이트 폭력 행위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아동기 학대 경험이 거부민감성 및 냉담-무정서 특질을 통해 어떻게 반응 및 주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거부민감성과 냉담-무정서 특질을 동시에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아동기 학대와 관련된 거부민감성과 냉담-무정서 특질의 발달 경로가 이후 데이트 폭력 행위의 공격성 유형에 차별적으로 관련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데이트 폭력 행위의 공격성 유형에 따라 다른 개입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유형에 따른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았다.

연구가설 1. 데이트 폭력 행위자의 아동기 학대 경험이 반응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냉담-무정서 특질에 비하여 거부민감성이 더 강하게 매개할 것이다(Figure 1).

연구가설 2. 데이트 폭력 행위자들의 아동기 학대 경험이 주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거부민감성에 비하여 냉담-무정서 특질이 더 강하게 매개할 것이다(Figur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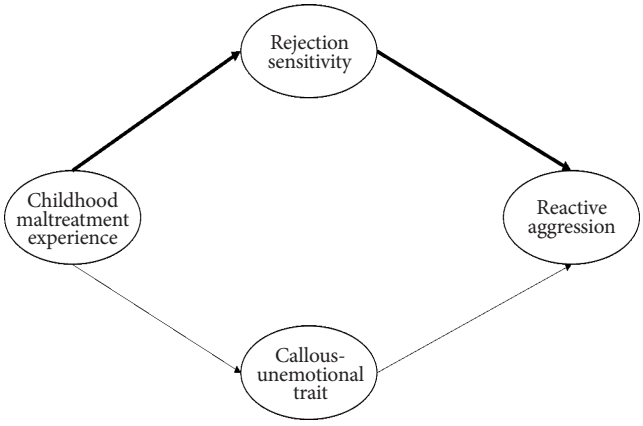

Figure 1. *Rejection sensitivity mediation model of childhood maltreatment experience and reactive aggression.*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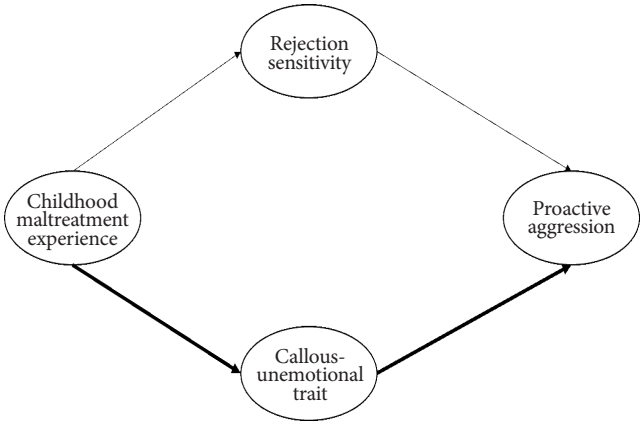

Figure 2. *Callous-unemotional trait mediation model of childhood maltreatment experience and proactive aggression.*

방 법

참여자 및 절차

본 연구는 충북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았다. 온라인을 통해 연구 홍보를 하였고 연구 참여 기준은 연애 경험이 있는 20세 이상 성인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도구와 연구자 소속 대학 오프라인 연구 참여자 모집 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318명, 오프라인을 통해 10명, 총 328명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328명 중 연구 참여에 동의가 누락된 참여자 3명과 연애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참여자 36명의 자료를 제외하여 총 289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참가자의 평균 연령은 23.28세였고 표준편차는 3.62세였다. 남성은 106명, 여성은 183명이었으며, 현재 연애 중인 사람은 159명, 연애 경험이 있던 사람은 130명이었다.

측정 도구

아동기 학대 경험(Childhood maltreatment experience)

Bernstein 등(2003)이 개발, Y. K. Lee (2006)가 번안하고 E. J. Kim (2009)이 타당화한 아동기 외상 질문지(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CTQ-SF)를 사용하였다.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정서적 방임, 신체적 방임, 성적 학대 5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5문항씩 총 25문항이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1점(전혀 없음)에서 4점(자주 있음)까지 4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졌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기 학대 및 방임을 자주 경험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0였다.

거부민감성(Rejection sensitivity)

Downey와 Feldman (1996)이 개발한 거부민감성척도(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 RSQ)를 토대로 M. J. Park과 Yang (2017)이 국내 대학생에 맞게 문항을 개발한 대학생 거부민감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예기분노 5문항, 예기불안 4문항, 거부지각 3문항, 과잉반응 4문항,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이뤄졌다. 총 점수가 높을수록 거부민감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9이었다.

냉담–무정서 특질(Callous–unemotional traits)

Frick (2003)이 개발하고 Essau 등(2006)이 타당화한 냉담-무정서 특질 척도(inventory of callous-unemotional traits, ICU)를 Kwon (2011)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CU특질 척도(K-ICU)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주의/무신경 9문항, 냉담성 10문항, 정서표현 결여 5문항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0점(전혀 아니다)에서 3점(매우 그렇다)까지 4점 Likert 척도로 이뤄졌다. 총 점수가 높을수록 CU 특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0이었다.

반응적/주도적 공격성(Reactive/proactive aggression)

Raine 등(2006)이 개발하고 J. H. Lee (2015)가 수정 보완한 반응-선제적 공격성 질문지(reactive-proactive questionnaire, RPQ)를 사용하였다. 주도적 공격성(선제적 공격성) 12문항, 반응적 공격성 11문항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1점(전혀 아니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이뤄졌다. Raine 등(2006)은 반응적 공격성 점수와 주도적 공격성 점수 간의 상관이 높기 때문에, 주도적 공격성에 독립적인 '순수' 반응적 공격성(pure reactive aggression) 점수와 반응적 공격성에 독립적인 '순수' 주도적 공격성(pure proactive aggression) 점수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순수 반응적 공격성 점수는 독립변인에 주도적 공격성 점수를 넣고 종속변인에 반응적 공격성 점수를 넣어 회귀 분석하여 반응적 공격성 점수의 표준화 잔차(평균 = 0, SD = 1)를 산출, 순수 주도적 공격성 점수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산출한다(Raine et al., 2006). 순수 반응적 공격성, 순수 주도적 공격성 점수가 높을수록 각 유형의 공격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8이었다.

데이트 폭력 행위(Intimate partner violence)

데이트 폭력 행위를 측정하기 위해 Straus, Hamby, Boney-McCoy

www.kci.go.kr

https://doi.org/10.15842/kjcp.2021.40.1.001

와 Sugarman (1996)이 개발한 갈등관리 척도-2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 CTS-2)를 J. N. Kim (1999)이 우리나라 대학생에 맞게 번안,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연인 간에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7문항, 심리적 폭력 11문항, 성적 폭력 4문항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요구특성을 방지하기 위해 참가자들에게 데이트 폭력 가해(내가 상대방에게 한 행위)에 대한 것과 데이트 폭력 피해(상대방이 나에게 한 행위)에 대한 것 모두 응답하도록 하여 총 44문항을 응답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1점(없음)에서 5점(매우 자주)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이뤄졌다. 점수가 높을수록 데이트 폭력 행위를 자주 경험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 폭력 가해에 대한 점수를 데이트 폭력 행위 점수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데이트 폭력 행위의 Cronbach's α는 .83였다.

자료 분석

데이트 폭력 행위 경험이 있는 표본을 선별하기 위해 전체 표본에서 데이트 폭력 행위 응답 빈도가 누적 50%ile인 1.32점보다 높은 데이터들을 선별하여 최종 13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통계 분석을 위해 SPSS 21.0과 PROCESS Macro v3.4의 model 4를 사용하였다. 134명 표본에서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이어서 아동기 학대 경험과 반응적 공격성 혹은 주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냉담-무정서 특질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Baron과 Kenny (1986)가 제안한 3단계 매개효과 검증 방식을 사용하였다. 1단계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 2단계에서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 다음, 마지막으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Hayes (2009)가 제안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표본을 10,000번 반복 추출하여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을 구한 다음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주요 변인 간 상관 분석을 실시하여 Table 1에 제시하였다. 데이트 폭력 행위는 아동기 학대 경험, 반응적 공격성, 주도적 공격성, 순수 주도적 공격성과 정적 상관이 유의하였다. 아동기 학대 경험은 거부민감성, 냉담-무정서 특질, 반응적 공격성, 주도적 공격성, 순수 주도적 공격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거부민감성은 반응적 공격성과 순수 반응적 공격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냉담-무정서 특질은 반응적 공격성, 주도적 공격성 그리고 순수 주도적 공격성과 정적 상관이 유의하였다. 반응적 공격성은 주도적 공격성, 순수 반응적 공격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가졌고, 주도적 공격성은 순수 주도적 공격성과 유의한 상관을 가졌다. 반응 및 주도적 공격성의 상관이 높으므로, 서로의 영향력을 제외한 표준화 잔차값인 순수 반응적 공격성과 순수 주도적 공격성 측정치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순수 반응적 공격성은 순수 주도적 공격성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 역시 설명력을 제외한 잔차값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이어 주요 변인들 간 다중공선성이 있는지 검토하였다. Menard (1995)에 의하면 분산팽창계수(VIF)가 5 이상이면 공선성 문제를 고려해야하며 10 이상이면 심각한 공선성 문제를 가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본 연구의 독립변인과 매개변인들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VIF가 최소 1.101에서 최대 1.181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여겼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Coefficients of Variables among People with Intimate Partner Violence Behavior* *(N = 134)*

	1	2	3	4	5	6	7	8
1. Intimate partner violence behavior	-							
2. Childhood maltreatment experience	.20*	-						
3. Rejection sensitivity	.02	.30***	-					
4. Callous-unemotional trait	.11	.30**	.15	-				
5. Reactive aggression	.25**	.18*	.21*	.37***	-			
6. Proactive aggression	.41***	.26**	.04	.51***	.61***	-		
7. Pure reactive aggression	-.05	-.02	.23**	.00	.70***	-.14	-	
8. Pure proactive aggression	.35**	.21*	-.09	.39***	.11	.85***	-.63***	-
Mean	1.61	1.43	2.89	0.97	2.65	1.48	0.28	0.06
Standard deviation	0.27	0.40	0.65	0.32	0.62	0.49	0.99	1.16

*$p < .05$, **$p < .01$, ***$p < .001$.

www.kci.go.kr

아동기 학대 경험, 거부민감성과 냉담–무정서 특질이 순수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기 학대 경험과 순수 반응적 공격성의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r = -.02$, $p = .85$. 따라서 매개효과 검증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아 아동기 학대 경험을 제외하고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거부민감성과 냉담-무정서 특질이 순수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Table 2에 제시했듯이, 분석 결과 거부민감성과 냉담-무정서 특질은 순수 반응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쳤다, $F(2, 131) = 3.87$, $R^2 = .06$, $p = .0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거부민감성은 순수 반응적 공격성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24$, $p = .006$. 하지만 냉담-무정서 특질은 순수 반응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03$, $p = .70$.

아동기 학대 경험과 순수 주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 냉담–주도적 특질의 매개효과

Table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1단계에서 아동기 학대 경험이 순수 주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R^2 = .05$, $F(1, 132) = 6.36$, $p = .01$. 그리고 2-1단계에서 아동기 학대 경험이 거부민감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R^2 = .09$, $F(1, 132) = 12.89$, $p < .001$. 또한 2-2단계에서 아동기 학대 경험이 냉담-무정서 특질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R^2 = .09$, $F(1, 132) = 12.59$, $p < .001$.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거부민감성과 냉담-무정서 특질은 순수 주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아동기 학대 경험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R^2 = .20$, $F(1, 132) = 10.95$, $p < .001$. 따라서 거부민감성, 냉담-무정서 특질은 아동기 학대 경험과 순수 주도적 공격성을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아동기 학대 경험과 순수 주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냉담-무정서 특질의 간접효과를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으로 확인하여 Table 4에 제시하였다. 거부민감성의 간접효과 하한 값은 -.475이고 상한 값은 .004로 신뢰구간 0을 포함하므로 거부민감성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냉담-무정서 특질의 간접효과 하한 값은 .077이고 상한 값은 .665로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냉담-무정서 특질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두 매개효과 간 차이 검증 결과, 하한 값이 -.979이고, 상한 값이 -.178로 냉담-무정서 특질의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데이트 폭력 행위자에게서 아동기 학대 경험이 반응적 혹은 주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거부민감성과 냉담-무정서 특질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우선, 데이트 폭력 행위 경험이 있는 사람의 아동기 학대 경험은 순수 주도적 공격성과 관계가 나타났지만 순수 반응적 공격성과는 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아동기 학대와 반응적 공격성의 관련성을 밝힌 선행연구(K. S. Park, 2018; H. E. Park& Park, 2017; Richey et al., 2016; Shields & Cicchetti, 1998)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아동 학대와 주도적 공격성과의 관련을 보인 다른 연구로 아동청소년 임상집단이 참여한

Table 2.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Rejection Sensitivity and Callous-Unemotional Trait on Pure Reactive Aggression*

Variable	B	*SE*	*β*	*t*	R^2	*df*	*F*
Rejection sensitivity	.36	.13	.24	2.78**	.06	2,131	3.87*
Callous-unemotional trait	-.10	.27	-.03	-.38			

*$p < .05$, **$p < .01$.

Table 4. *Bootstrapping Result for Indirect Effect of Rejection Sensitivity, Callous-Unemotional Trai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Maltreatment Experience and Pure Proactive Aggression*

Variable	Indirect effect	Boot S.E.	95% CI	
			Lower	Upper
Rejection sensitivity	-.172	.125	-.475	.004
Callous-unemotional trait	.321	.155	.077	.665
Comparing the strength indirect effects	-.492	.206	-.979	-.178

Table 3. *Mediating Effects of Rejection Sensitivity, Callous-Unemotional Trai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Maltreatment Experience and Pure Proactive Aggression*

Step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B (SE)*	*t*	R^2	*F*
1	Childhood maltreatment experience	Pure proactive aggression	0.62 (0.25)	2.52*	.05	6.36*
2-1	Childhood maltreatment experience	Rejection sensitivity	0.49 (0.14)	3.59***	.09	12.89***
2-2	Childhood maltreatment experience	Callous-unemotional trait	0.23 (0.07)	3.55***	.09	12.59***
3	Childhood maltreatment experience	Pure proactive aggression	0.47 (0.25)	1.91	.20	10.95***
	Rejection sensitivity		-0.35 (0.15)	-2.42*		
	Callous-unemotional trai		1.37 (0.30)	4.57***		

*$p < .05$, ***$p < .001$.

www.kci.go.kr

https://doi.org/10.15842/kjcp.2021.40.1.001

Connor 등(2004)의 기초 상관 분석에서 아동학대가 반응 및 주도적 공격성 모두와 상관을 보인 점, 사법시설 남성 청소년의 아동기 학대 경험은 반응 및 주도적 공격성 모두에 영향을 미쳤던 점(Hoeve et al., 2015), 그리고 보호관찰 성인 및 아동 역경 경험 대학생 집단에서 아동학대 경험이 반응 및 주도적 공격성 모두와 상관을 보인 점(Scott, 2017)은 데이트 폭력 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 결과와 일관된다. 이로 미루어 보아, 임상 혹은 폭력 행동이 있는 집단에서 아동기 학대는 주도적 공격성과 관련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아동학대와 반응 및 주도적 공격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의 차이가 나타난 이유는 표본 특성이 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이유로 변인 특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성인들 중 데이트 폭력 행위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공격성 유형을 측정하였고, 특히 서로의 영향력을 제외한 순수 반응 및 순수 주도적 공격성 점수를 측정하였다. 순수 반응적 공격성은 반응적 공격성 점수에서 주도적 공격성으로 설명되는 부분을 제외한 잔차값이다(Raine et al., 2006). 따라서 아동기 학대와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는 반응적 공격성 측정에 주도적 공격성이 혼입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척도 제작자인 Raine 등(2006)의 연구에서 원 점수일 때 정신병질과 충동성은 반응적 및 주도적 공격성 모두와 정적 관계가 있었지만, 잔차값을 사용했을 때 정신병질은 주도적 공격성만, 충동성은 반응적 공격성만 관계가 나타났다. 그리고 원 점수와 잔차값을 사용하여 공격성 유형 간 성격, 사회정보처리과정, 부적응적 행동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살펴본 Miller와 Lynam (2006)의 연구에서 원 점수일 때, 폭력 범죄와 재물 손괴는 반응적 및 주도적 공격성 모두와 정적 관계가 있었지만, 잔차값일 때는 주도적 공격성만 관계가 있었다. 이에 Miller와 Lynam (2006)은 잔차값은 서로의 변량을 제거하였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하지만, 원 점수를 사용했을 때보다 잔차값을 사용했을 때 유형간 차이가 더 드러난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도 원 점수에선 반응적 공격성과 주도적 공격성 모두 아동기 학대 경험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잔차값 분석이 과연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가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개인 안에서 주도 및 반응적 공격성은 혼재되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도적 공격성은 공격을 당하거나 목격함으로써 공격 행동으로 사람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하고 모방하여 습득한다고 여겨지는데(Card & Little, 2007), 반응적 공격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러한 폭력의 보상학습을 통해 주도적 공격성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Merk, Orobio de Castro, Koops, & Matthys, 2005). 이를 통해 반응적 공격성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다.

비록 본 연구에서 아동기 학대 경험이 반응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가설은 기각되었지만, 선행연구(Jacobs & Harper, 2013; Tweed & Dutton, 1988)와 일관된 결과로, 데이트 폭력 행위 경험이 있는 사람의 순수 반응적 공격성은 냉담-무정서 특질과 관련이 없었고 거부민감성과 정적인 관계가 나타났다. 즉, 본 연구에서 아동기 학대 경험과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는 밝히지 못했으나, 반응적 공격성이 높은 사람들은 거부에 민감한 특성으로 인해 연인에게 거부를 지각하는 상황에서 불안과 분노를 느끼며 이에 대한 반응으로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하면서 데이트 폭력을 할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다.

선행연구(J. H. Lee et al., 2017; Scott, 2017; White et al., 2015)와 일관되게, 본 연구에서 순수 주도적 공격성은 냉담-무정서 특질과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즉, 주도적 공격성을 보이는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공격 행동을 하는데 죄책감과 공감이 결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e.g., Tweed & Duttion, 1998). 그리고 선행연구와 일관되게 아동기 학대 경험은 거부민감성(Feldman & Downey, 1994; H. E. Kang & Cho, 2017)과 냉담-무정서 특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ains, 2017; Carlson et al., 2015).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아동기 학대 경험은 거부민감성이 아닌 냉담-무정서 특질만으로 순수 주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지지되었다. 즉 데이트 폭력 행위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아동기 학대 경험을 통해 죄책감과 공감, 정서표현 능력이 결여되어 연인에게도 데이트 폭력을 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을 살펴본다면, 첫째, 본 연구는 비임상 지역사회 표본에서 데이트 폭력 행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결과는 파트너 폭력 범죄자 집단을 대상으로 반응적 및 주도적 공격성 유형을 분류한 선행연구(Chase et al., 2001; Stanford et al., 2008; Tweed & Dutton, 1998)와 일관된 특징을 보였다. 따라서 데이트 폭력 행위 양상에 연속적인 특징이 있다고 간주할 수 있고, 이에 범죄 집단뿐만 아니라 비임상 지역사회 집단에도 데이트 폭력 행위를 예방하는 개입이 일관되게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아동기 학대 경험은 냉담-무정서 특질을 통해 주도적 공격성으로 나타난 바, 데이트 폭력에서 주도적 공격성에 개입할 때 냉담-무정서 특질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주도적 공격성을 잘 설명하는 냉담-무정서 특질이 강한 사람들은 죄책감과 양심이 결여되어 있고 연인의 감정이나 생각을 신경 쓰지 않고 적대적 귀인 편향을 보이지 않으며 공포와 불안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Essau et al., 2006; Frick et al., 2000). 게다가 주도적 공격성을 보이는 사람들은 공격행동에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

www.kci.go.kr

용하면서 반사회적인 성격을 보이기 때문에(Crick & Dodge, 1996; Stanford et al., 2008), 냉담-무정서 특질이 강하면서 주도적 공격성이 높은 사람들은 연인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죄책감 없이 데이트 폭력을 행할 수 있다. 또한 그 폭력의 정도가 더 심각하고(Salekin et al., 2004), 치료에 대해 저항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Stanford et al., 2008) 냉담하며 주도적 공격성이 높은 사람들에겐 공격행동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등을 통한 공감 능력 향상이 필요해 보인다(e.g., Merk et al., 2005; Muñoz & Frick, 2012). 그리고 본 연구에서 냉담-무정서 특질은 아동기 학대의 후유증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아동학대에 대한 개입에 있어 냉담성과 정서에 대해 다룰 필요가 있다. Bains (2017)에 의하면 아동기 학대로 인한 해리 증상이 냉담-무정서 특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해리 증상에 초점을 맞춘 외상 후 개입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아동기 학대와의 관련성은 없었으나 반응적 공격성은 거부민감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 바, 데이트 폭력에서 반응적 공격성 특성에 개입할 때에는 거부민감성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겠다. 반응적 공격성과 관련된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연인이 자신을 떠날 것이라고 지각하고 불안과 분노를 느끼게 되고(Downey & Feldman, 1996), 데이트 폭력 같은 과잉 반응을 보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반응적 공격성을 보이는 사람들은 적대적 귀인편향과 함께 정서조절과 행동 통제의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Crick & Dodge, 1996; Stanford et al., 2008), 거부를 당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불안과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데이트 폭력을 행할 수 있다. 따라서 반응적 공격성이 높은 사람들에겐 정서조절능력과 상황에 대한 귀인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Merk et al., 2005).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연구로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 거부민감성과 반응적 공격성, 냉담-무정서 특질과 주도적 공격성의 관계는 인과적일 수 있으나 상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종단연구 혹은 교차지연설계를 통해 인과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아동기 학대 경험과 데이트 폭력 행동을 자기보고를 통해 측정하였기 때문에 축소하여 보고하였을 수 있다. 특히 아동기 학대 경험은 회고식 측정을 했으므로 기억 왜곡으로 인한 측정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데이트 폭력 행위 보고에서 축소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데이트 폭력 피해 경험 역시 동시에 측정하여 가해를 보고하는 것에 대한 불편감을 최소화하고자 시도하였다. 추후에는 Chase 등(2001)처럼 면담을 통해 데이트 폭력에 대한 자료를 얻는 등 자료 수집의 신뢰도를 보다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학대 경험 이후 공격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진 변인들만 가지고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였지만, 이후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 또래 애착, 사회적 지지 같이 공격성을 완화해줄 수 있는 변인들을(S. G. Kang, 2018; C. H. Lee & Shin, 2015) 매개 혹은 조절변인으로 모형에 추가하여 아동기 학대 경험 이후 발달적 경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성인 데이트 폭력 행위자를 대상으로 아동기 학대를 경험한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발달적 경로를 확인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아동기 학대와 주도적 공격성에 관여하는 매개변인을 확인하여 데이트 폭력 행위자의 공격성 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개입 방향을 제안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Author contributions statement

Seung Gyu Lee, M.A. graduate at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onceived the research, analyzed data and prepared the manuscript. Hyunjung Choi Ph.D., assistant professor at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provided critical feedback and revised the manuscript. All authors approved the final submission. The authors have no conflict of interest to declare.

References

Bains, M. (2017). *Childhood abuse, dissociation, and callous-unemotional trai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astern Washington University, Washington, USA.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

Bernstein, D. P., Stein, J. A., Newcomb, M. D., Walker, E., Pogge, D., Ahluvalia, T., . . . & Zule, W. (200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brief screening version of the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Child Abuse & Neglect, 27*, 169-190.

Card, N. A., & Little, T. D. (2007). Differential relations of instrumental and reactive aggression with maladjustment: Does adaptivity depend on function?. In Patricia H. H, Todd D. L, & Phillip C. R (Eds.). *Aggression and Adaptation: The Bright Side to Bad Behavior* (pp. 107-134). Mahwah, NJ: Erlaum.

Carlson, M., Oshri, A., & Kwon, J. (2015). Child maltreatment and risk behaviors: The roles of callous/unemotional traits and conscientiousness. *Child Abuse & Neglect, 50*, 234-243.

Chase, K. A., O'Leary, K. D., & Heyman, R. E. (2001). Categorizing partner-violent men within the reactive–proactive typology mod-

www.kci.go.kr

https://doi.org/10.15842/kjcp.2021.40.1.001

el.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9*, 567-572.

Coker, A. L., Davis, K. E., Arias, I., Desai, S., Sanderson, M., Brandt, H. M., & Smith, P. H. (2002). Physical and mental health effect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for men and women.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23*, 260-268.

Connor, D. F., Steingard, R. J., Cunningham, J. A., Melloni, R. H., & Anderson, J. J. (2004). Proactive and reactive aggression in referred children and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4*, 129-136.

Crick, N. R., & Dodge, K. A. (1996).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mechanisms i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67*, 993-1002.

Downey, G., & Feldman, S. I. (1996). Implications of rejection sensitivity for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1327.

Essau, C. A., Sasagawa, S., & Frick, P. J. (2006). Callous-unemotional traits in a community sample of adolescents. *Assessment, 13*, 454-469.

Feldman, S., & Downey, G. (1994). Rejection sensitivity as a mediator of the impact of childhood exposure to family violence on adult attachment behavior.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6*, 231-247.

Frick, P. J. (2003). The inventory of callous-unemotional traits. Unpublished rating scale.

Frick, P. J., Bodin, S. D., & Barry, C. T. (2000). Psychopathic traits and conduct problems in community and clinic-referred samples of children: Further development of the psychopathy screening device. *Psychological Assessment, 12*, 382.

Gibb, B. E., Butler, A. C., & Beck, J. S. (2003). Childhood abuse, depression, and anxiety in adult psychiatric outpatients. *Depression and Anxiety, 17*, 226-228.

Gill, A. D., & Stickle, T. R. (2016). Affective differences between psychopathy variants and genders in adjudicated youth.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4*, 295-307.

Hayes, A. F. (2009). Beyond baron and kenny: Statistical mediation analysis in the new millennium. *Communication Monographs, 76*, 408-420.

Heise, L., & Garcia-Moreno, C. (2002). Violence by intimate partners. In Krug, E. G. et al. (Eds.), *World Report on Violence and Health* (pp. 87-121).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Hoeve, M., Colins, O. F., Mulder, E. A., Loeber, R., Stams, G. J. J. M., & Vermeiren, R. R. J. M. (2015). The association between childhood maltreatment, mental health problems, and aggression in justice-involved boys. *Aggressive Behavior, 41*, 488-501.

Jacobs, N., & Harper, B. (2013). The effects of rejection sensitivity o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Aggressive Behavior, 39*, 3-12.

Kang, H. E., & Cho, Y. A. (2017).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abuse and Emotional regulation: Mediating effect of Rejection sensitivit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 618-627.

Kang, S. G. (2018). *The effects of Domestic abuse experience on adolescents' Aggressiveness: Moderating role of Self-resilience and Peer attach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Kim, E. J. (2009). *The mediating effects of Early maladaptive schemas,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Avoidance coping style between Childhood trauma and Early adulthood dep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Kim, H. Y., & Park, S. O. (2017). Meta-analysis on effects of Domestic psychotherapy intervention on Childhood trauma. *Korean Journal of Infant Mental Health, 10*, 1-27.

Kim, J. N. (1999). *College students' Dating violence and Coping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wangju, Korea.

Kruh, I. P., Frick, P. J., & Clements, C. B. (2005). Historical and personality correlates to the violence patterns of juveniles tried as adult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2*, 69-96.

Kwon, E. J. (2011). *Validation for korean inventory of Callous-unemotional traits: Comparison between ordinary juveniles and juvenile delinqu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Korea.

Lee, C. H., & Shin, J. S. (2015). An analysis on effects of Domestic violence and Social support on Dating violence among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2*, 27-57.

Lee, H. K., Kim, K. H., & Lee, H. K. (2014). Influence of Rejection sensitivity on the Aggression: The mediated moderating effect of Catastrophic thinking through positive affect.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6*, 97-121.

Lee, J. H. (2015). *The relationships among Psychopathy, Empathy, and Agg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Lee, J. H., Lee, H. J., & An, D. Y. (2017). The relationships among Psychopathy, Empathy, and Aggression. *Clinical Psychology in Korea: Research and Practice, 3*, 303-347.

Lee, Y. K.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trauma and Psychological symptom, Interpersonal problem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Attach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Menard, S. (1995). *Appli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age university series on quantitative applications in the social sciences*. Thousand Oaks, CA: Sage.

Merk, W., Orobio de Castro, B., Koops, W., & Matthys, W. (2005). The distinction betwee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Utility for theory, diagnosis and treatment?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 197-220.

Miller, J. D. & Lynam, D. R. (2006).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

www.kci.go.kr

ferences, 41, 1469-1480.

Muñoz, L. C., & Frick, P. J. (2012). Callous-unemotional traits and their implication for understanding and treating aggressive and violent youth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9*, 794-813.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2018). *Child Abuse & Neglect Korea 2018* (Publication No. 11-1352000-002541-01). Retrieved from http://www.korea1391.go.kr/new/bbs/board.php?bo_table=report&wr_id=9882.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2014). *Child welfare act*. Retrieved from http://www.law.go.kr/법령/아동복지법.

O'Sullivan, D., Watts, J., & Shenk, C. (2018). Child maltreatment severity, chronic substance abuse, and disability status. *Rehabilitation Psychology, 63*, 313-323.

Park, H. E., & Park, J. H. (2017). The effects of Child maltreatment from parents on Reactive aggression among upper-elementary-school students and the moderating role of effortful control.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8*, 5-17.

Park, K. S. (2018). The modulating effects of Self compassion on Childhood trauma in Depression and Reactive aggress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5*, 167-190.

Park, M. J., & Yang, N. M. (2017). Validation of Rejection sensitivity scale for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9*, 103-127.

Raine, A., Dodge, K., Loeber, R., Gatzke-Kopp, L., Lynam, D., Reynolds, C., . . . Liu, J. (2006). The reactive–proactive aggression questionnaire: Differential correlates of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adolescent boys. *Aggressive Behavior, 32*, 159-171.

Richey, A., Brown, S., Fite, P. J., & Bortolato, M. (2016). The role of hostile attributions in the associations between child maltreatment and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25*, 1043-1057.

Salekin, R. T., Leistico, A. M. R., Neumann, C. S., DiCicco, T. M., & Duros, R. L. (2004). Psychopathy and comorbidity in a young offender sample: Taking a closer look at psychopathy's potential importance over disruptive behavior disorder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3*, 416.

Scott, E. P. (2017). *Exploring Oxytocin and Callous-unemotional traits as mediator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altreatment and Aggress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ast Carolina University, North Carolina, USA.

Shields, A., & Cicchetti, D. (1998). Reactive aggression among maltreated children: The contributions of attention and emotion dysregulatio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7*, 381-395.

Shin, J. Y., & Choi. S. M. (2017). The effect of Rejection sensitivity, Gender asymmetry on Dating violence - The mediating effect of Aggression -.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22*, 533-549.

Stanford, M. S., Houston, R. J., & Baldridge, R. M. (2008). Comparison of impulsive and premeditated perpetrator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Behavioral Sciences & the Law, 26*, 709-722.

Straus, M. A., Hamby, S. L., Boney-McCoy, S., & Sugarman, D. D. (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 (CTS-II). *Journal of Family Issues, 17*, 283-316.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9). *Police Statistical Yearbook 2018*. Retrieved from https://www.police.go.kr/www/open/publice/publice05.jsp.

Tweed, R. G., & Dutton, D. G. (1998). A comparison of impulsive and instrumental subgroups of batterers. *Violence and Victims, 13*, 217-230.

White, B. A., Gordon, H., & Guerra, R. C. (2015). Callous–unemotional traits and empathy in proactive and reactive relational aggression in young wome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75*, 185-189.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2). Intimate partner violence. Retrieved from https://apps.who.int/iris/bitstream/handle/10665/77432/WHO_RHR_12.36_eng.pdf.

Yang, S. A., & Suh, K. H. (2015). Relationship between Rejective parenting and Dating violence of college students: Focused on mediating effect of Rejection sensitivit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2*, 407-427.

Yoon, H. E. (2017). A meta-analysis of the relationship of Child-abuse to Psycho-social maladjustment.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8*, 173-206.

www.kci.go.kr

https://doi.org/10.15842/kjcp.2021.40.1.001

국문초록

아동기 학대 경험과 데이트 폭력 행위: 거부민감성과 냉담–무정서 특질의 매개효과

이승규·최현정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성인 데이트 폭력 행위자의 아동기 학대 경험이 거부민감성과 냉담-무정서 특질을 매개로 반응적 및 주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지역사회 성인을 대상으로 아동기 학대 경험, 거부민감성, 냉담-무정서 특질, 순수 반응적 및 주도적 공격성, 데이트 폭력 행위를 측정하였다. 총 328명 중 데이트 폭력 행위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별하여 134명의 자료로 회귀분석과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아동기 학대 경험은 반응적 공격성과 관련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중다회귀분석결과 거부민감성은 순수 반응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쳤고 냉담-무정서 특질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아동기 학대 경험은 순수 주도적 공격성과 관련이 있었고 그 과정에 냉담-무정서 특질만 완전매개효과를 가졌다. 마지막으로 아동기 학대와 데이트 폭력 행위의 공격성 유형에 관한 이론적, 임상적 시사점과 연구의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아동기 학대, 데이트 폭력, 거부민감성, 냉담–무정서 특질, 반응 및 주도적 공격성

www.kci.go.kr